

[국어문법 기출문제 정리]

지문형 문법 문제

KOREAN
GRAMMAR

2018학년도 수능 대비!!

※ 2017학년도 평가원 독서+문법 기출문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12번

[1~2]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1>

-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 B :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젓다’는 ‘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와’처럼 어간이 ‘둑-’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버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젓고’처럼 어간이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절-’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와’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와’ > ‘도와’, ‘더버’ > ‘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ㅅ’ 앞에서는 반모음 ‘ㅛ / ㅜ [w]’로 바뀌었고, ‘도보시니’ > ‘도오시니’, ‘서볼’ > ‘서울’에서와 같이 ‘ㅇ’ 또는 ‘ㄱ’이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ㅇ’ 또는 ‘ㅌ’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 > ‘아으’, ‘저서’ >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서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서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 A :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와’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는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와’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젓고’와 현대 국어의 ‘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2.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 곱다	곱게	고바	고븐	곱게	고와	고온
②	(선을) 굶다	굶게	그서	그슨	굶게	그서	그슨
③	(자리) 눕다	눕게	누버	누븐	눕게	누워	누은
④	(머리) 빚다	빚게	비서	비슨	빚게	비서	비슨
⑤	(손)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총집합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12번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3.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 | | |
|--------|-------|--------|
| ㉠ 나들이웃 | ㉡ 눈웃음 | ㉢ 드높이다 |
| ㉣ 집집이 | ㉤ 놀이터 | |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4.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을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 |
|---------------------------|
| ㉠ 지회는 목소리가 곱다. |
|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 ㉢ 동수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 |
|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곱다’로 분석되었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었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었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었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었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4~15번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죽다’의 어근 ‘죽-’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새로운 어간 ‘죽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죽이다’의 어간 ‘죽이-’는 ‘죽다’의 어간 ‘죽-’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서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눕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높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에 위해 차를 끓였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높이’는 명사이므로 ‘높이’ 속의 ‘높-’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여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6.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형이 동생을 올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납겼다.]
- ③ [㉠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총집합

※ 2016~2017년 교육청 독서+문법 기출문제

2017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4~15번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높임법은 높임이나 낮춤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화자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높임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서’에 의해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기도 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도 주로 ‘-시-’와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유사하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드리다’와 같은 특수한 어휘나 조사 ‘께’ 등을 통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을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으며, ‘-습-’은 앞뒤의 음운적 환경에 따라 ‘-습-, -줍-, -슬-, -슬-, -줄-’으로 실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 국어와 같이 특수한 어휘들이 사용되어 객체 높임이 실현되기도 하였다.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을 일컫는다. 현대 국어에서 상대 높임법은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된다.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종결 표현이나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잇-’ 등을 통해 실현되었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仁義之兵(인의지병)을 遼左(요좌) | ㉠ 깃스뵈니
[현대어 풀이] 인의의 군대를 요동 사람들이 기뻐하니
- 聖孫(성손)이 ㉡ 一怒(일노)호시니 六百年(육백년) 天下(천하) | 洛陽(낙양)에 ㉢ 올드니이다
[현대어 풀이] 성손(무왕)이 한번 노하시니 육백 년의 천하가 낙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 聖宗(성종)을 ㉣ 뵈셔 九泉(구천)에 가려 하시니
[현대어 풀이] 성스러운 어른을 모시고 저승에 가려 하시니
- 하늘히 駙馬(부마) 달애사 두 孔雀(공작)일 ㉤ 그리시니이다
[현대어 풀이] 하늘이 부마를 달래서 두 공작을 그리신 것입니다.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

- ①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선어말 어미 ‘-습-’을 사용하여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聖孫(성손)’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청자를 높이기 위해 ‘-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하여 특수한 어휘가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은 선어말 어미 ‘-시-’와 ‘-이-’를 사용하여 각각 문장의 주체와 청자인 상대방을 모두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 윗글과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서 사용된 높임의 양상을 빠르게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보기 1>

주체 높임에는 서술의 주체를 직접 높이는 직접 높임과,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부분, 개인적 소유물 등을 높임으로써 해당 인물을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보기 2>

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한영이가 아버지 대신 할아버지를 뵈고 왔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직접 높임	간접 높임		
①	×	○	○	높임
②	×	○	×	낮춤
③	○	×	○	높임
④	×	○	×	높임
⑤	○	×	○	낮춤

2017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4-15번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세기 국어의 모음 조화는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 한 형태소 내의 모음들을 살펴보면 ‘ㅏ, ㅑ, ㅓ’ 등의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ㅜ, ㅗ, ㅡ’ 등의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렸다. 중성 모음 ‘ㅣ’는 양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고, 음성 모음과 어울리기도 하였다. 또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단어가 형성되거나 체언에 조사가 연결될 때, 용언 어간에 어미가 연결될 때에도 조사나 어미의 첫 모음은 그에 선행하는 모음과 같은 성질의 모음이 연결되었다. 예를 들어, 목적격 조사는 그에 선행하는 명사의 모음에 따라 ‘을/을, 를/를’ 중 하나가 선택되었고, ‘-은/-은’, ‘-음/-음’, ㉠ ‘-아/-어’와 같은 어미도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에 따라 규칙적으로 선택되었다. 다만, 조사 ‘도’, ‘와/과’나 어미 ‘-고’, ‘-더-’ 등은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모음 조화는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ㅓ’의 소실과 관계가 있다. 16세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ㅓ’가 소실되면서 주로 ‘ㅡ’에 합류하였다. 첫째 음절에서의 ‘ㅓ’는 여전히 양성 모음이었으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ㅓ’ 대신 음성 모음인 ‘ㅡ’가 쓰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체언에 연결되는 ‘은/은’, ‘을/을’, ‘의/의’ 등의 조사는 점차 ‘은’, ‘을’, ‘의’ 등으로 통일되었고, 모음 조화를 지키던 ‘사슴’과 같은 단어들은 ‘사슴’과 같이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18세기에 첫째 음절에서의 ‘ㅓ’가 주로 ‘ㅏ’에 합류하면서 ‘ㅓ’는 완전히 소실되었고, 국어의 모음 체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모음 조화가 약화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형태소 내부와 경계에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출렁출렁’, ‘출렁출렁’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나 ㉡ 일부 용언의 어간 뒤에 ‘-아/-어’ 계열의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9. ㉠과 ㉡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국어		현대 국어	
	용언 어간	활용형	용언 어간	활용형
㉠	알-	아라	알-	알아
㉡	먹-	머거	먹-	먹어
㉢	씨오-	씨와	깨우-	깨워
㉣	바-	배	쓰-	써
㉤	ㄹ득ㅎ-	ㄹ득ㅎ야	가득하-	가득하여

10.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겨스레 소음 둔 오술 님디 아니 호고 너르메 서늘훈 디 가디 아니 호며 호르 팔 두 호브로써 죽을 밍글오 소금과 느물홀 먹디 아니 호더라
- 「내훈」(1447년)에서 -
[현대어 풀이]
겨울에 숨 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여름에 서늘한 데 가지 아니하며 하루 팔 두 홉으로써 죽을 만들고 소금과 나물을 먹지 아니하더라.

(나)
타락과 초와 장과 소금과 계즌 ㄹ과 파과 마늘과 부취와 기름과 댓무우과 외와 가지 등 여러가지 느물과 닭기 알과
- 「박통사언해」(1677년)에서 -
[현대어 풀이]
타락과 식초와 장과 소금과 겨자 가루와 파와 마늘과 부추와 기름과 당근과 오이와 가지 등 여러 가지 나물과 닭의 알과

- 15세기에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겨슬’과 ‘호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5세기에는 체언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음을 (가)의 ‘오술’과 ‘죽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에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가)의 ‘호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17세기에는 모음 조화의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음을 (나)의 ‘초와’와 ‘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군.
- 둘째 음절의 ‘ㅓ’가 ‘ㅡ’로 변하였음을 (가)의 ‘느물’과 (나)의 ‘느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군.

2016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1~12번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화]

학생 A : ‘뽕씨’는 ‘뽕’과 ‘씨’가 결합한 말이잖아? 그런데 왜 ‘뽕씨’가 아니라 ‘뽕새’야?

학생 B : 그러고 보니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도 ‘ㄱ’이 ‘ㄷ’으로 바뀌어서 ‘살코기’로 쓰이고 있어.

학생 A : 그렇구나. 왜 두 말이 어울릴 적에 ‘ㄷ’ 소리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 것일까?

[자료]

현대 국어와 달리 15세기 국어에서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 즉 어두 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 그러한 자음군 중 맨 앞의 ‘ㄷ’은 당시에는 실제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ㄷ’은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복합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현대 국어의 ‘뽕+씨→뽕새’에서 ‘ㄷ’이 생겨나는 이유는 ‘뽕>씨’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15세기에는 ‘뽕’의 어두에 ‘ㄷ’이 있었는데, 당시 ‘뽕+씨→뽕새’가 만들어진 후 나중에 ‘뽕’의 어두에 있는 ‘ㄷ’이 앞 형태소의 받침 자리로 가서 붙어 ‘뽕새’와 같은 어형이 생성되었다. ‘뽕>씨’에서 보듯이 훗날 단일어에서는 ‘ㄷ’이 탈락하였다. 그러나 ㉠ 복합어 속에서는 ‘ㄷ’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현대 국어에서 확인된다.

15세기 국어에는 체언 종성에 ‘ㅎ’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고 한다. 이 ‘ㅎ’ 역시 훗날 탈락하였으나 과거에 만들어진 단어 속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ㅎ’ 종성 체언이었던 ‘술ㅎ’을 살펴보자.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으나 ‘술ㅎ+이→술히’처럼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연음이 되어 나타났다. 현대 국어의 ‘살+고기→살코기’에서 ‘ㄱ’이 ‘ㄷ’으로 바뀌는 이유 역시 ‘술ㅎ>살’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ㅎ’ 종성 체언은 ‘ㄱ, ㄷ, ㄴ’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ㅎ’ 종성이 뒤에 오는 ‘ㄱ, ㄷ, ㄴ’과 결합하여 ‘ㄱ, ㄷ, ㄴ’으로 축약되어 나타났다. 즉 ‘술ㅎ’이 ‘고기’와 결합한 말이 만들어질 때 ‘ㅎ’이 ‘ㄱ’과 결합하여 축약되었으므로 ‘살코기’와 같은 어형이 생성된 것이다. 현대 국어에서 단일어의 ‘ㅎ’ 종성은 대체로 소멸하였으나 ‘살코기’ 외에도 ㉡ 복합어 속에서 ‘ㅎ’이 탈락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다.

11. 위 ‘대화’와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15세기 국어에서 ‘뽕’의 어두에 있는 ‘ㄷ’은 실제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군.
- ㉡ 15세기 어두 자음군 중 맨 앞의 ‘ㄷ’은 단일어에서 훗날 탈락하였군.
- ㉢ 15세기 국어의 ‘ㅎ’ 종성 체언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는 ‘ㅎ’이 실현되지 않았겠군.
- ㉣ 현대 국어에는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음이 오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군.
- ㉤ 현대 국어의 ‘살코기’에서 ‘ㄷ’은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단어에 남아 있는 것이군.

12.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a. 뽕새 : ‘뽕’과 ‘새’가 결합한 말인데, ‘새’는 옛말 ‘쌀’에서 온 말이다.
- b. 햅쌀 : ‘햅’과 ‘쌀’이 결합한 말인데, ‘햅’은 옛말 ‘쌀’에서 온 말이다.
- c. 수평 : ‘수’와 ‘평’이 결합한 말인데, ‘수’는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d. 안팎 : ‘안’과 ‘팍’이 결합한 말인데, ‘안’은 옛말에서 ‘ㅎ’을 종성으로 가지고 있었다.
- e. 들뜨다 : ‘들다’와 ‘뜨다’가 결합한 말인데, ‘뜨다’는 옛말 ‘쁘다’에서 온 말이다.

	㉠	㉡
㉠	a, b	c
㉡	a, e	c
㉢	a, b	d
㉣	b, e	d
㉤	a, b, e	c, d

2016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4~15번

[13~14] 다음은 형태소 및 단어에 관한 교과서 내용과 학습활동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과서 내용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을 기준으로 명사처럼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와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조사처럼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야만 사용될 수 있는 ‘의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처럼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실질 형태소’와 조사, 어미, 접사처럼 문법적인 의미를 가진 ‘형식 형태소’로 나눌 수 있다.

(가) 형태소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라면, ‘단어’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그런데 ‘조사’는 자립성이 없는 형태소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존명사도 자립성은 없지만 명사와 마찬가지로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있고, 꾸미는 말과 늘 띄어 쓰며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하고 있다.

(나) 학습활동

<자료>는 ‘용비어천가’의 일부입니다. 아래의 ‘옛말사전’을 활용하여 <자료>의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자 료>

- 불휘 기른 **남곤** **벼룩매** 아니 **필썩**
(현대어 풀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 식미 기른 **므른** **ㄹᄆ래** 아니 **그출썩**
(현대어 풀이) 샘이 깊은 **물**은 **가뭇**에 아니 **끓어지**므로

옛말사전		
나모	명사	‘나무’의 옛말. 휴지(休止) 앞에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공동격 조사 ‘와’ 앞에서 나타나며, 그밖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는 ‘남’으로 나타난다.
온	조사	(끝음절의 모음이 ‘ㄹ, ㅌ, ㄱ’이고 받침 있는 체언류 뒤에 붙어) 은.
벼룩매	명사	‘바람’의 옛말.
에	조사	(일부 체언류 뒤에 붙어) 에.
뛰다	동사	‘움직이다’의 옛말
-르썩	어미	(동사, 형용사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 -기에. -므로.
물	명사	‘물’의 옛말.
ㄹᄆ래	명사	‘가뭇(=가뭇)’의 옛말.
끓다	동사	‘끓어지다’의 옛말.

1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는 **너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
- 나는 **꽃**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
- 네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니?
㉢
- 교실 **안**은 숨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다.
㉣

- ① ㉠과 ㉢은 꾸미는 말의 꾸밈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 ② ㉠과 ㉢은 자립하여 쓰일 수 없으므로 단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과 ㉣은 조사가 붙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등으로 사용된다.
- ④ ㉡과 ㉣은 문장에서 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어로 인정된다.
- ⑤ ㉢과 ㉣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 쉽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14. (가)를 바탕으로 (나)의 학습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남곤’은 실질 형태소 ‘나모’가 형식 형태소 ‘온’ 앞에서 ‘남’으로 나타난 것이겠군.
- ② ‘벼룩매’와 ‘ㄹᄆ래’는 각각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말이겠군.
- ③ ‘필썩’은 의존 형태소 ‘뛰-’와 의존 형태소 ‘-르썩’로 이루어진 말이겠군.
- ④ ‘므른’의 ‘물’은 의미를 가진 말의 최소 단위이면서 동시에 최소의 자립 형식이기도 하겠군.
- ⑤ ‘그출썩’은 형식 형태소 ‘끓-’에 형식 형태소 ‘-르썩’이 결합한 단어이겠군.

2017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영역 11-12번

[15~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것은 용언인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체언에 ‘이다’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표현이다.

- (1) 준영이가 책을 읽는다. / 읽느냐? / 읽는구나.
(2) 준영아, 책을 읽어라. / 읽자.

(1), (2)는 동사 ‘읽다’가 문장 안에서 그 형태가 변하는 예이다. 이때 변하지 않는 부분인 ‘읽-’은 어간이고, 변하는 부분인 ‘-는다, -느냐, -는구나, -어라, -자’는 어미이다. 이처럼 용언 어간에 여러 가지 어미가 붙는 일을 ‘활용’이라 한다.

- (3) 꽃이 예쁘다. / 예쁘냐? / 예쁘구나.
(4) 꽃아, *예빠라. / *예쁘자. (*표는 비문법적인 표현.)

(3), (4)는 형용사 ‘예쁘다’가 활용하는 예이다. (1), (2)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의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1)과 (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의 활용에는 ‘-는/ ㄴ다, -느냐, -는구나’가 쓰이지만 형용사의 활용에는 ‘-다, -(으)냐, -구나’가 쓰인다. 다음으로 (2)와 (4)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어간과 달리 형용사 어간에는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가 붙을 수 없다. ‘꽃이 참 예빠라!’와 같이 ‘예빠라’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의 ‘-어라’는 명령형 어미가 아니라 감탄형 어미이다.

- (5) 이것이 책이다.(*책이는다.) / 책이냐?(*책이느냐?)
/ 책이로구나.(*책이는구나.) / *책이어라. / *책이자.

(5)는 체언 ‘책’에 ‘이다’가 결합한 어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이는 예이다. (5)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다’도 용언처럼 활용을 한다. 이때 ‘-는/ ㄴ다, -느냐, -는구나’, 그리고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의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다’의 활용 양상은 대체로 (3), (4)에 나타난 형용사의 활용 양상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밑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 ② 형용사는 활용할 때 감탄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다.
- ③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에 붙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 ④ 동사는 형용사에 비해 ‘이다’와 활용 양상이 유사하다.
- ⑤ ‘이다’는 활용할 때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16.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나는 주로 저녁에 씻는다.
- ㉡ 오늘 날씨가 정말 춥구나.
- ㉢ 규연아, 지금 밥 먹자.
- ㉣ 창문을 활짝 열어라.
- ㉤ 그는 어떤 사람이냐?

- ① ㉠의 ‘씻는다’는 어간이 ‘-는다’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 ② ㉡의 ‘춥구나’는 어간이 ‘-구나’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이다.
- ③ ㉢의 ‘먹자’는 어간이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동사이다.
- ④ ㉣의 ‘열어라’는 어간이 명령형 어미 ‘-어라’와 결합한 것으로 보아 형용사이다.
- ⑤ ㉤의 ‘사람이냐’는 체언에 ‘이다’가 결합한 말이 활용한 것이다.

※ 2013학년도 이전 평가원/교육청 독서 언어학 지문 기출문제

2005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47-49번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는 언어 단위 중 가장 작은 단위이다. 여기서 ‘가장 작다’라는 말은 더 이상 쪼개면 그 의미가 없어지는, 따라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크기라는 뜻이다. 그리고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고 할 때의 ‘의미’에는 어떤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 문법적 의미까지도 포함된다.

형태소에는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자립 형태소가 있는 반면,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단어가 되는 의존 형태소도 있다. 즉, ‘흙’, ‘나무’ 등은 독립적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형태소이지만, ‘읽어라’의 ‘읽-’은 ‘읽으니, 읽고, 읽게’처럼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문장에 쓰일 수도 있고 단어 행세도 할 수 있는 형태소이다.

그래서 단어는 대체로 자립 형식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자립 형식이란 다른 요소와의 결합 없이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 형식을 가리킨다. 단어는 자립 형태소와 비슷하지만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라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립 형식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된다. 흔히 단어를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조건만으로 단어를 다 규정 짓기는 어렵다. 어떤 언어 형식이 단어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학자에 따라서는 어절을 단어로 보기도 하며 더 분석된 단위를 단어로 취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주시경 등의 초기 문법가들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를 ‘철수, 가, 책, 을, 읽, 었다’의 여섯 개의 단어로 쪼개진 것으로 보았지만, 최현배 등 한글 맞춤법 제정에 참여

[가] 했던 학자들은 ‘철수, 가, 책, 을, 읽었다’의 다섯으로 보았다.

‘-었-’과 같은 의존 형태소가 ‘읽-’과 같이 자립성이 없는 말에 붙을 때에는 단어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승녕 등의 역사 문법가들은 ‘철수가, 책을, 읽었다’의 셋으로 나누었다.

역사 문법가들은 의존 형태소인 ‘가, 를’을 단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시경이나 최현배 등의 학자들은 단어로 인정한 것이다. ‘가, 를’이 ‘읽었다’에서의 ‘-었다’처럼 실질 형태소에 붙는다는 점에 근거한다면 단어의 자격이 없다고 하겠으나 결합 대상인 실질 형태소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중시하여 단어로 처리한 것이다. 곧 ‘가, 를’이 붙는 말은 자립 형태소인데 반하여 ‘-었다’가 붙는 말은 의존 형태소이다. ‘읽-’은 ‘-었다’와 결합하여야만 자립성을 발휘할 수 있으나 ‘철수, 책’은 그 자체로도 자립성이 있다. 따라서 ‘가, 를’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앞의 말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리성은 ‘가, 를’ 앞에 다른 단어가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분명해진다. ‘철수가 책만을 읽었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책’과 ‘을’ 사이에 다른 단어인 ‘만’이 들어갈 수

있다. 즉, ‘책’과 ‘을’은 분리성을 가진다. 하지만 ‘책상’과 같은 경우는 ‘책’과 ‘상’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없다. 단어는 그 내부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분리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어는 그 내부에서는 분리성이 없지만 다른 단어와의 경계에서는 분리성이 있는 언어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17.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실질 형태소는 모두 자립성을 지닌다.
- ② 단어는 그 자체 내에서는 분리성이 없다.
- ③ 자립 형태소는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다.
- ④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의 언어 단위이다.
- ⑤ 자립 형식은 문장에 독립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

18.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설명하는 용어의 개념을 밝히며 서술하고 있다.
- ③ 갖추어야 할 조건을 중심으로 대상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 ④ 설명 대상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후 그 내용을 간단한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19. <보기>는 [가]를 읽고 나서 보인 반응이다.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사람은?

—<보 기>—

“한 사람이 노래하면서 가요.”라는 문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민주 : 주시경 선생님이라면 이 문장에서 ‘노래하면서’의 ‘-면서’는 단어의 자격이 있다고 하겠군.

주현 : 최현배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고 볼 거야. ‘노래하면서’는 그냥 한 단어로 간주할 거야.

현진 : 이승녕 선생님은 명사 ‘사람’과 조사 ‘이’가 결합된 ‘사람이’를 한 단어로 보았겠군.

진수 : 하지만 최현배 선생님의 단어관에 따르면 ‘사람’과 ‘이’는 각각 단어로 보아야겠지.

수정 : 주시경 선생님은 이 문장을 모두 여섯 개의 단어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을 거야.

- ① 민주 ② 주현 ③ 현진 ④ 진수 ⑤ 수정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41-43번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써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를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교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를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 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20. 윗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21.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한 상무 :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 ㉠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 ㉡ 고모님 뵈는 게 몇 년 만인가? ㉢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 어, 저기 ㉣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려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22. 밑줄 친 단어들이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④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06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33~36번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인 조사가 풍부하게 발달한 언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의 기능이나 용법을 규명하는 일은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가) 영수가 삼국지를 읽었다.
(나) 영수가 삼국지는 읽었다.
(다) 염소와 말이 풀을 먹었다.

(가)의 ‘삼국지’에는 ‘를’이 붙어 있는데, ‘를’은 ‘삼국지’가 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하지만 (나)의 ‘삼국지’ 뒤에 붙은 ‘는’은 ‘삼국지’가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기능 없이 의미만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한다. 즉, (나)는 ‘영수가 삼국지가 아닌 다른 책은 읽지 않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조사는 체언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거나 어떤 뜻을 더해 주는 기능을 하는데, 전자를 격조사라 하고 후자를 보조사라 한다.

(다)에서 ‘와’는 ‘염소’와 ‘말’을 병렬적으로 이어주는데, 이처럼 ①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조사를 접속조사라 한다. ‘와’와 같은 조사를 격조사가 아닌 접속조사로 따로 나눈 것은 그 기능이 격 조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격조사가 붙은 체언은 문장의 한 성분이 되지만 접속조사가 붙은 체언은 접속 조사에 의해 이어진 모든 체언이 한 덩어리로 문장 성분이 된다.

(다)와 (가)를 비교해 보면, 주어 자리의 조사가 ‘가’에서 ‘이’로, 목적어 자리의 조사가 ‘를’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것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느냐 자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조사의 형태만 바뀐 것이다. 이와 같이 기능은 같으면서도 다른 요소의 영향을 받아 형태가 바뀐 쌍을 이형태 관계에 있다고 한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자립형식 뒤에 붙는 문법적 요소이다. 자립 형식이란 더 이상의 문법적 요소가 붙지 않고도 단독으로 문장 속의 어떤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은 어미가 붙는 말들과 견주어 보면 뚜렷해진다. (가)에서 ‘-었-’이 붙은 ‘읽-’이나 ‘-다’가 붙은 ‘읽었-’은 단독으로 문장 속에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다. 국어 문법에서 ‘가, 를’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고, ‘-었-, -다’ 따위에 대해서는 단어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이들이 붙을 수 있는 말들의 자립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앞에서 조사를 설명할 때 무엇에 붙어 쓰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조사나 어미처럼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말들을 접사라 한다. 접사 가운데는 조사나 어미가 아닌 것도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에서 ‘-들이’ 그것인데 이것을 파생접사라 한다. 흔히 좁은 의미로 접사라고 할 때는 이러한 파생접사만을 가리킨다. 그런데 ‘-들이’는 자립형식인 체언에 붙는 것이어서 조사와 혼동하기가 쉽다. 이 ‘-들이’를 조사가 아닌 파생접사라고 하는 까닭은, 조사는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어휘 범주가 주어지면 그 범주에 속하는 모든 단어들에 다 붙을 수 있지만 ‘-들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23. 윗글을 읽고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 ① 조사의 문법적 기능은 무엇인가?
- ② 조사는 어떠한 경우에 생략되는가?
- ③ 조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④ 조사의 형태 바뀔의 조건은 무엇인가?
- ⑤ 조사는 파생접사와 어떻게 구별하는가?

24. 윗글로 수업을 한 후 선생님이 <보기>와 같은 질문을 하였을 때,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격조사와 보조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 ① 그것들이 붙은 말의 자립성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② 다른 말에 붙어 쓸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③ 동일 어휘 범주에서 그것들이 붙을 수 있는 단어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④ 다른 말과의 관계를 표시하는가, 뜻을 더해 주는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 ⑤ 그것이 붙은 체언이 단독으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2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하늘은 푸르고 낙엽이 지는 가을, 낙엽을 태우는 냄새같이 좋은 향기가 있을까?

- ① ‘낙엽, 향기’에 붙은 ‘이’와 ‘가’는 서로 이형태 관계에 있다.
- ② ‘좋은’의 ‘은’은 자립형식 뒤에도 붙을 수 있는 문법 요소이다.
- ③ ‘냄새같이’에서 ‘같이’는 국어 문법에서 단어의 자격을 갖는다.
- ④ ‘낙엽이’에서 ‘낙엽’은 ‘이’가 붙지 않아도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인다.
- ⑤ ‘하늘’에 붙은 ‘은’과 ‘낙엽’에 붙은 ‘이’는 문법적 기능에 차이가 있다.

26. ㉠의 예로 제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벼루하고 먹고하고 가져 오나라.
- ② 술에 밥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
- ③ 머루랑 다래랑 먹고 즐겁게 놀았다.
- ④ 옷이며 신이며 죄다 흩어져 있었다.
- ⑤ 집집마다 마음마다 웃음꽃이 피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6-38번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 용언은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미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미를 그와 유사한 것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어미와 조사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 어미는 항상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므로 그 선행 요소인 어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 + 어미’ 전체가 한 단어로 취급된다. 이에 반해 조사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 조사의 앞에 결합하는 요소(주로 체언)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조사의 생략도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기가 쉽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여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다.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은 어미와 접미사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더욱이 접미사 중에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것들이 있어 어미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미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읽었고, 읽겠습니다, 읽었느냐, ……」와 같이 용언 어간 ‘읽-’에 어떤 어미들이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읽다’라는 한 단어의 활용형일 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활용형들은 별도의 단어가 아니므로 일일이 사전에 등재하지 않으며, 활용형 중 어간에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 하여 이것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이에 반해 접미사는 어미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한다. ㉣ 파생된 단어의 품사가 파생 이전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동사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파생 전과 후가 모두 동사여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라는 명사가 되어 품사가 바뀐다. 또한 ㉤ 어미는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데 비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27. 위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어려운 개념들을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들을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다.
- ⑤ 중심 대상과 다른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28.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②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
- ③ 어미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용언은 특정한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 ⑤ 어미는 접미사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다.

29. <보기>의 ㉠~㉣를 ㉦~㉨의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훈 : 어제 집 앞에서 ㉠ 지나가는 선우를 ㉡ 만났어. ㉢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 많이 좋아졌대.

수진 : 정말? 이제 마음이 ㉣ 놓이네. 계속 ㉤ 걱정하고 있었거든.

- ① ㉠ : 문장 내에서 ‘선우’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② ㉡ : 어간인 ‘만나-’와 어미인 ‘-았-’, ‘-어’가 모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③ ㉢ : 조사 ‘에’는 생략 가능하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④ ㉣ : 동사 어간 ‘놓이-’는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⑤ ㉤ : ‘걱정하-’에 어미 ‘-고’가 결합한 ‘걱정하고’는 쓰일 수 있으나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걱정하이-’는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2008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30-31번

[30~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문장들은 그 구조로 볼 때, 단일 명제로 구성된 단문(홀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명제들이 결합된 복합문(겹문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우리가 단일 명제로 된 문장들만을 사용하게 된다면 명제들의 계층적 결합 관계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측면에서도 대단히 비경제적인 일이 된다. 또한, 여러 문장들이 내포한 총체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 명제들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접속에 의한 결합과 내포에 의한 결합의 두 가지 방식이 흔히 사용된다. 접속에 의한 결합 방식은 두 개 이상의 명제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데, 다음 예문은 접속에 의하여 두 개의 명제를 결합한 문장이다.

철수는 과자를 좋아하지만 영희는 사과를 좋아한다.

접속에 의한 결합에서는 결합되는 명제들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내포에 의한 결합에서는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에 종속되거나 다른 명제의 일부가 된다. 내포에 의한 결합 방식에는 보문에 의한 내포와 관계절에 의한 내포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문에 의한 내포는 어떤 명제에서 비어 있는 요소, 즉 ‘무엇’이나 ‘어떤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또 다른 명제를 사용하는 방식인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철수는 무엇을 기다린다. (무엇 = 눈이 내리다)

→ 철수는 눈이 내리기를 기다린다.

관계절에 의한 내포에서는 어느 하나의 명제가 다른 명제의 한 요소를 한정하거나 수식하게 되는데 실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사과는 빨갭다)

→ 철수가 빨간 사과를 먹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여러 개의 명제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응축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문장을 응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에는 생략과 대명사화, 대동사화 등이 있다. 생략은 한 문장 안에서 어떤 내용을 반복하여 제시하게 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철수는 사과를 먹고, 철수는 물을 마셨다.

→ 철수는 사과를 먹고, 물을 마셨다.

대명사화는 한 문장 안에서 복잡한 요소 대신에 대명사와 같은 단일한 요소를 사용하는 현상인데 대동사화도 이와 비슷하다. 그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 주었고, 용감한 학생은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 용감한 학생이 어린이를 구해 주었고, 그는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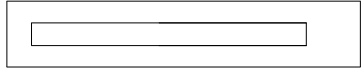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다.

→ 철수는 수영장에 가기를 원했고, 영희도 그랬다.

30. 윗글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결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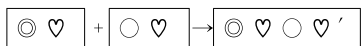
· 접속  ①

· 내포  ②

○ 문장 성분의 응축 방식

· 생략  ③

· 대명사화  ④

· 대동사화  ⑤

31. <보기>를 ㉠에 따라 나열한 것 중, 옳은 것은? [3점]

<보 기>

ㄱ. 토끼는 앞발이 짧다.

ㄴ. 하늘이 높고 땅이 살찐다.

ㄷ. 철수는 영희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주었다.

	접속에 의한 결합	보문에 의한 내포	관계절에 의한 내포
①	ㄱ	ㄴ	ㄷ
②	ㄴ	ㄱ	ㄷ
③	ㄴ	ㄷ	ㄱ
④	ㄷ	ㄱ	ㄴ
⑤	ㄷ	ㄴ	ㄱ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44-46번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인 높임법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연세(年歲)’,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밥’과 ‘진지’ 등의 명사 어휘를 비롯하여 ‘주다’와 ‘드리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미안하다’와 ‘죄송하다’ 같은 동사나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단어들이 보이는 높임의 차이는 단어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 ㉠ ‘나이’와 ‘연세’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 물론 ㉡ ‘생일’과 ‘생신’의 예처럼 같은 한자어끼리도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거나 ㉢ ‘밥’과 ‘진지’처럼 고유어 가운데서도 높임의 정도가 다른 예들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이나 ‘친분’,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서열’이란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직위, 친족 항렬 등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서열에 따라 높임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사과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쓰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경우,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로, 두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높임의 등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안하다’는 ‘하십시오체’에서부터 ‘해라체’까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 ‘죄송하다’는 ‘하십시오체’나 ‘해요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높임의 차이는 ‘죄송하다’의 쓰임 영역이 주로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미안하다’는 하위자에게도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인 화자들이 사회적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미안하다’보다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서열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와의 ‘친분’, 곧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선택한다. 따라서윗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같은 윗사람이더라도 친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 또한 아랫사람이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높임 표현의 선택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즉 평소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를 쓰더라도, 회의석상이나 법정에서와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32. 윗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어의 선택을 통해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
- ② 상대와의 친분에 따라 높임 표현이 선택될 수 있다.
- ③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④ 한자어는 의미가 비슷한 고유어보다 일반적으로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
- 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화 상대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33. ㉠~㉢과 동일한 유형의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① | 술 — 약주 | 말 — 말쑥 | 문다 — 여쭙다 |
| ② | 이 — 치아 | 사망 — 별세 | 있다 — 계시다 |
| ③ | 딸 — 따님 | 마누라 — 부인 | 자다 — 주무시다 |
| ④ | 엄마 — 어머니 | 책방 — 서점 | 먹다 — 잡수시다 |
| ⑤ | 속웃 — 내의 | 너 — 당신 | 가난하다 — 빈곤하다 |

3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시장이 과장에게)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일은 내일까지 끝내 주세요.
- 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형, 오늘은 제가 내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 ㄷ. (사장인 어머니에게) 엄마, 저녁을 함께 못 해 미안해요.
/ 사장님,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 ㄹ. 부장 : 사장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장 : 남 부장, 내가 오히려 미안했네.
- ㅁ. (약속 시간에 늦어서 친구에게)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
정말 미안해.

- ① ㄱ :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 대신 ‘미안하다’는 쓸 수 없군.
- ② ㄴ : 친한 사이의 상위자에게는 ‘미안하다’도 쓸 수 있군.
- ③ ㄷ : 같은 상대라도 대화 상황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바꿔 쓸 수 있군.
- ④ ㄹ : 상대의 지위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구별하여 사용했군.
- ⑤ ㅁ :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 대신 ‘죄송하다’는 쓸 수 없겠군.

2011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48-50번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국어의 부정 표현은 부정 부사 ‘안’, ‘못’과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부정 부사를 통한 부정문을 짧은 부정문, 부정 용언을 통한 부정문을 긴 부정문이라고 한다. ‘안, 아니하다’의 부정은 어떠한 상태를 단순히 부정하는 상태 부정을 나타내거나, 어떤 동작이 주어의 의지에 의해 일어나지 않은 의지 부정을 나타낸다. ‘못, 못하다’의 부정은 일반적으로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낸다.

그런데 국어의 부정 표현에는 몇 가지 예외적인 현상이 보인다. 우선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는 의지 부정 표현, 능력 부정 표현이 사용되지 않음을 (1)을 통해 알 수 있다. (1)의 ㄴ, ㄷ에서 ‘안, 않다’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표현은 의지 부정 표현이 아니라 상태 부정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 (1) ㄱ. 영희는 예쁘다.
 ㄴ. 영희는 안 / *못 예쁘다.
 ㄷ. 영희는 예쁘지 않다. / *못하다.

한편 부정 표현이지만 실제 의미로는 부정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 수사 의문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2)의 ㄱ은 “예, 안 갔어요.”와 “아니요, 갔어요.”의 두 가지 대답이 가능한 부정 의문문이나, (2)의 ㄴ은 수사 의문문으로 쓰인 것이어서 부정 표현이 쓰였다고 하더라도 부정의 의미가 없다.

- (2) ㄱ. 영희 아직 안 갔니?
 ㄴ. (책 한 권은 충분히 사 줄 수 있다는 뜻으로) 영희한테 책 한 권 못 사 줄까?

국어의 부정 표현 논의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부정의 범위에 대한 것이다. 이는 부정 표현을 통해서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짧은 부정문이든 긴 부정문이든 의지 부정이든 능력 부정이든 간에 부정 표현에 있어서 부정의 범위는 모두 중의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3)에서 ‘안’이 부정하는 내용은 (3)-a처럼 ‘철수’가 될 수도 있고, (3)-b처럼 ‘그 책’이 될 수도 있으며, (3)-c처럼 ‘읽다’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들 세 가지가 동시에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부정된다.

- (3) 철수가 그 책을 안 읽었다.
 a. 그 책을 안 읽은 것은 철수였다.
 b. 철수가 안 읽은 것은 그 책이었다.
 c. 철수가 그 책에 대해 하지 않은 것은 읽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철수, 그 책, 읽다’의 어느 하나에 강세를 주어 읽거나, ‘철수가 그 책은 안 읽었다.’처럼 부정하고자 하는 단어에 보조사 ‘은/는, 만, 도’ 등을 덧붙이거나, 문맥을 통해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35.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의지 부정과 능력 부정 모두 중의성을 갖는다.
 ② 짧은 부정문은 부정 부사를 활용해서 나타낸다.
 ③ 문맥을 통해 부정 범위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④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부정 표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⑤ 상태 부정과 의지 부정은 주어의 능력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1>을 분석할 때, <보기 2>에서 찾을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나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분명히 나는 어제 도서관에서는 영희를 만나지 않았거든. 왜 아이들은 내 말을 못 믿는 걸까. 나는 늘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겐 내가 미덥지 않았나 봐.

<보기 2>

ㄱ. 보조사를 덧붙여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ㄴ.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장에서의 상태 부정 표현
 ㄷ. 상태 부정이나 의지 부정이 모두 가능한 짧은 부정문
 ㄹ. 주어의 능력이나 다른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긴 부정문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37. <보기>의 ㉠~㉣ 중,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영희 : ㉠ 너 요즘 시간 없지?
 철수 : ㉡ 내가 너한테 시간을 못 내겠니? ㉢ 무슨 일 있니?
 영희 : 우리 반 합창 대회 반주자가 필요해서……. ㉣ 안 될까?
 철수 : 그런데 내가 피아노를 연습한 지가 너무 오래 됐어…….
 ㉤ 괜찮겠니?
 영희 : 그럼, 괜찮아.

- ① ㉠ ② ㉡ ③ ㉢ ④ ㉣ ⑤ ㉤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7-19번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말소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 안의 여러 기관들과 코, 후두, 기관(氣管), 혀와 등이 그것들인데, 이 중 후두는 발성 작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후두의 일차적 기능은 공기 외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A]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분화되는 것은 후두 위쪽의 두 공간, 즉 목안과 입안을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혀의 앞부분을 센입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면 ‘i’가 발음되고, 혀를 바짝 낮춤으로써 입안을 최대화하고 목안을 최소화하면 ‘a’가 발음되며,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가깝게 함으로써 두 공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u’가 발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음은 전설 모음 - 후설모음, 고모음 - 중모음 - 저모음 등으로 분화된다. 한편, 입술도 모음의 분화에 관여하는데, 입술을 오므리고 펴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나누어진다.

자음은 대개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분화된다. 이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다양한 소릿값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ㄷ’은 혀끝을 윗잇몸 근처에 대고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듯 옆으로 내는 파열음이다. 여기서 ‘혀끝 - 윗잇몸’은 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듯 옆’은 조음 방법이 된다.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 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는 ‘ㄷ’과 다르지만 조음 방법은 같다. 그밖에도 짝을 이루는 아래 위의 두 기관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마찰음이 있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코안을 울려서 내는 비음과, 혀끝을 윗몸에 가깝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유음도 있다.

38.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 ③ 언어마다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은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 ④ ‘마찰음’이나 ‘유음’은 조음 방법상의 특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 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ㄴ, ㄹ, ㅇ’과 같은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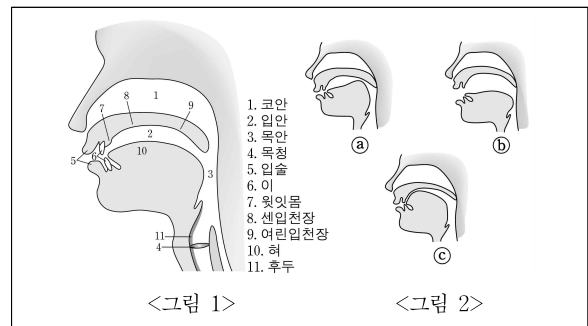
39. [A]와 <보기>의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서는 다양한 모음이 발견되지 않는다.
-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팬지는 기본 모음인 [i], [a], [u]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했다.
- 화석 인류의 발성 기관을 재구하여 실험한 결과, 불과 몇 개의 모음만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 ① 후두가 목구멍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모음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② 갓난아이와 침팬지가 다양한 모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을 것이다.
- ③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성할 수 없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 ④ 화석 인류의 후두는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 ⑤ 인간이 지금과 같은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40. 윗글을 읽고 ‘구비’라는 단어를 ‘ㄱ-ㅍ-ㅂ-ㄴ’로 나누어 발음한다고 할 때, 자음의 조음 위치를 <그림 1>에서, 모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그림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7-ㄷ-5-ㄱ
- ② 8-ㄱ-7-ㄷ
- ③ 8-ㄱ-7-ㄷ
- ④ 9-ㄱ-5-ㄷ
- ⑤ 9-ㄷ-5-ㄱ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1-33번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 - 기상대 - 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잇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ㅌ)은 1도, 비음(ㅁ, ㄴ, ㅇ[ŋ])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ㅑ, ㅕ, ㅗ, ㅛ)은 4도, 중모음(ㅐ, ㅖ, ㅓ, ㅜ)은 5도, 저모음(ㅓ, ㅗ)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	ㄷ	ㅓ	ㅇ	ㅊ	ㅓ	ㅗ	ㅛ
개구도	0	5	2	0	6	2	4
부등호	<	>	>	<	>	<	>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ㅓㅇ ㅊㅓㅗㅛ’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 + 모음 + (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ŋ]’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ㅈ, ㅊ, ㅌ’이면 모음 ‘ㅓ, ㅖ, ㅓ, ㅜ’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n]이나 [l] 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ɪŋ]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국어의 음절 구조를 분석하여 위치에 따라 올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언어에 따라 음절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국어의 음절을 정의할 때, ㄱ~ㄹ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보 기>

음절은 개구도가 (ㄱ) 모음을 핵으로, 그 앞과 뒤에 개구도가 (ㄴ) 자음이 각각 (ㄷ)까지 올 수 있는 (ㄹ)의 최소 단위이다.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 작은 | 큰 | 하나 | 발음 |
| ② | 작은 | 큰 | 둘 | 글자 |
| ③ | 큰 | 작은 | 하나 | 발음 |
| ④ | 큰 | 큰 | 둘 | 글자 |
| ⑤ | 큰 | 작은 | 하나 | 글자 |

43. 윗글로 보아 부등호 배열이 ‘<>>>’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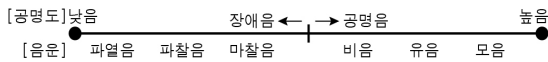
- ① 가족 ② 다수 ③ 성질 ④ 승부 ⑤ 우정

2012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30~3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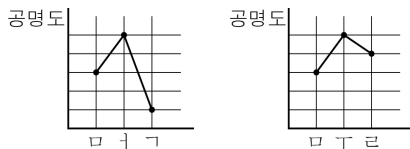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소리의 공명성은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는 성질을 의미한다. 동일한 길이, 강세, 높이로 소리를 낼 경우 공명성이 큰 말 소리는 그렇지 않은 말소리보다 더 멀리까지 정확하게 들린다. 입이나 코 또는 성문(聲門)이 더 많이 열리면서 소리를 동반하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될 덜 받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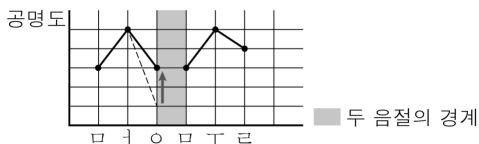
(나) 음운 중에는 모음이 자음에 비해 공명성이 훨씬 크다. 자음 중에는 혀 주변이나 코로 공기가 흐르며 소리가 나는 유음(ㄹ), 비음(ㅁ, ㄴ, ㅇ)이 공명성이 크다. 혀, 치아, 입술 등에 의해 공기가 막혔다 터지거나 좁은 곳을 흐르며 심한 장애를 받는 마찰음(ㅅ), 파찰음(ㅈ), 파열음(ㅂ, ㄷ, ㄱ)은 공명성이 작다. 공명성의 크기를 측정해 공명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비음부터는 공명음, 나머지는 장애음이라고 한다.



(다) 우리말 음절은 기본적으로 음운들이 결합해 이뤄지기 때문에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나타난다. 음운들이 각각의 공명도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먹’은 세 개의 음운, 즉 초성에 비음 ‘ㅁ’, 중성에 모음 ‘ㅣ’, 종성에 파열음 ‘ㄱ’이 모여 음절을 이루므로 음절 내에서 공명도 변화가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물’은 비음 ‘ㅁ’, 모음 ‘ㅣ’, 유음 ‘ㄹ’이 결합하고 있으므로 ‘먹’보다는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다.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를 다음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 그런데 ‘먹’과 ‘물’ 두 음절이 이어지면, 자음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선행 음절 종성에 있는 파열음 ‘ㄱ’이 비음 ‘ㅇ’으로 변해 [명물]로 발음되는데, 이는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이러한 음운 변동을 거치며 선행 음절 종성의 공명도가 후행 음절 초성의 공명도만큼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먹물’→[명물]에서 나타나는 음운 변동 현상을 ‘비음화’라고 하는데, 이는 공명도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음절과 음절이 만날 때에는 발음의 편의를 위해 특정 음운이 변동되면서 음절 간의 공명도 차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먹물’처럼 장애음과 비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나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보다 낮은 경우에는, 후행 음운이 선행 음운보다 높은 공명도로 시작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때 선행 음운인 장애음이 비음으로 바뀌면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높아지면서 음절 간 공명도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4. (가)~(마)의 중심 화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공명성과 말소리의 특징
- ② (나) : 음운들의 공명성 차이
- ③ (다) : 음절 내에서의 공명도 변화
- ④ (라) : 공명도 변화에 따른 음운 변동의 종류
- ⑤ (마) : 공명도 변화에 따른 비음화 현상의 이해

45. 밑글을 통해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파열음은 비음에 비해 공명성이 작다.
- ② 공명성은 혀나 치아 등의 발음 기관에 영향을 받는다.
- ③ 모음은 공명도가 비음보다 높으므로 공명음에 속한다.
- ④ 장애음은 공명음에 비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 ⑤ 음절 내에서 초성의 공명도는 종성의 공명도보다 높다.

46. 밑글을 참고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는 → [㉠]	문답 → [㉡]

- ① ‘문’과 ‘는’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 ‘문’은 ‘는’에 비해 음절 내의 공명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 ② ‘문’과 ‘답’을 단독으로 발음할 때, ‘문’은 ‘답’에 비해 더 높은 공명도로 끝날 것이다.
- ③ 음절이 이어지면, ‘문’의 장애음과 ‘는’의 비음이, ‘문’의 비음과 ‘답’의 장애음이 음절 경계에서 만날 것이다.
- ④ ‘문는’은 ㉠에서 음절 경계에 있는 선행 음운의 공명도가 후행 음운만큼 높아질 것이다.
- ⑤ ‘문답’은 ㉡에서 음절 경계에 있는 후행 음운의 공명도가 선행 음운만큼 낮아질 것이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0-31번

[47~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을, '+/-'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ㅁ/과 /ㅂ/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ㅁ/은 [+양순성, +비음성], /ㅂ/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운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 (A → B / ___ C)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운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48. 밑줄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규칙】 A → B / ___ C

【실례】 ㄱ → ㅇ / ___ ㅁ 국물 [국물]
 ㄴ → ㄴ / ___ ㅁ 만머느리 [만머느리]
 ㅂ → ㅁ / ___ ㄴ 읍내 [읍내]

- ① ㉠에 해당하는 'ㄱ, ㄴ,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② ㉡에 해당하는 음운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 ③ ㉢에 해당하는 'ㄴ, ㅁ'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④ '읍내'에서 ㉣에 해당하는 'ㅂ'과 'ㅁ'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 ⑤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운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총집합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33-35번

[49~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교 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밝히고, 친족 관계가 확인된 언어들의 조어(祖語, 조상 언어)를 추정하며,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 언어학을 통해 세계의 언어를 여러 어족(語族)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언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다.

언어 간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교 언어학에서는 비교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내었다. 비교 방법에서는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한다. 음운의 대응이란 겉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이다. 친족 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고 하자.

	봄	불	하나	
A 언어	tom	tel	tark	
B 언어	som	sel	sark	

위의 예에서 우리는 A 언어와 B 언어 간에 보이는 /t/ ↔ /s/의 대응을 통해 이들 언어 간에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운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의 예를 보자.

산스크리트어	pitár
라틴어	pater
고대 영어	fæder

이들을 비교해 보면 첫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에서는 /p/로,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더 조어에 가까우므로 이들의 기원은 /p/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음들을 추정하여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조어가 ‘pater’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것을 ㉠ 외적 재구라 한다.

한편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 내적 재구라 한다. 언어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을 통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적 흔적은 문헌을 통해,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된다. 한 언어 안에서 어떤 단어의 어형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때 외적 재구보다 내적 재구를 사용하게 된다.

49. 밑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확인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 ㉡ 조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어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 한 언어에서 과거와 현재의 단어를 비교하여 더 오래된 어형을 추정하는 것은 내적 재구에 해당한다.
- ㉣ 비교 방법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말에 /m/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유사성은 배제해야 한다.
- ㉤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간에 음운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50. ㉠보다 ㉡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a.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 b.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 c.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 ㉠ a
- ㉡ b
- ㉢ c
- ㉣ a, b
- ㉤ a, c

51. 밑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자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	pom (봄)	pul- (불다)	pil- (빌다)
만주어	fom (계절)	fulgije (불다)	firu- (빌다)
몽고어	hon (년)	hülie- (불다)	hirüer- (빌다)

- ㉠ 국어의 ‘pom’과 몽고어의 ‘hon’을 보니 그 조어는 ‘phom’이 겠군.
- ㉡ 만주어의 /f/가 몽고어의 /h/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 국어의 ‘pil-’과 만주어의 ‘firu-’를 보니 국어의 /l/이 만주어의 /r/에 대응하는 음운 대응의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 국어의 /p/가 만주어의 /f/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만주어가 국어보다 예전의 모습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 만주어의 /m/이 몽고어의 /n/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후 /n/이 /m/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겠군.

2012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25-27번

[52~5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인 근대 국어에서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는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현재의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서 ‘ㄷ, ㅌ’이 ‘ㅈ, ㅊ’이 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래 구개음화란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어떠한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ㄷ, ㅌ, ㄸ’이나 ‘ㄱ, ㅋ, ㆁ’이 구개음인 ‘ㅈ, ㅊ, ㅉ’이 되고, 그 밖의 몇몇 자음이 같은 조건에서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한다.

구개음화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4년에 나온 유희의 언문지에는 당시 사람들이 ‘다더’나 ‘타터’를 ‘자저’나 ‘차쳐’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관서 지방 사람들만이 ‘턴(天)’과 ‘천(千)’, ‘디(地)’와 ‘지(至)’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에 평안 방언을 제외한 여러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디, 다, 더, 도, 듀’와 ‘티, 타, 터, 토, 투’ 등과 같은 결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디, 티’가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디, 티’가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ㅈ,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ㅈ, ㅊ’은 원래 치음이었었는데, 이것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ㄷ, ㅌ’ 등의 구개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ㅈ, ㅊ’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변하다가 ‘ㅈ, ㅊ’을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자, 저, 조, 주’와 ‘차, 저, 초, 주’의 변별적 차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19세기 문헌에서는 ‘자’와 ‘차’, ‘저’와 ‘저’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구개음화는 이 밖에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ㅅ’이나 ‘ㄴ’ 등에서도 나타났다. 어두에서 모음 ‘ㅣ’나 반모음 ‘ㅣ’에 선행한 ‘ㄴ’의 탈락은 구개음화된 ‘ㄴ’을 어두에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18세기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문헌을 보면 ‘님금’이 ‘임금’으로 ‘니르다’가 ‘이르다’로 표기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9세기에 오면 이러한 어두에서의 ‘ㄴ’ 탈락이 일반화된다.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ㄱ’과 ‘ㅇ’이 합쳐진 ‘ㄱ-ㅇ’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티다’가 ‘치다’로 변한 것과 같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식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 반모음 ‘ㅣ’: ‘ㅌ, ㄸ, ㅊ, ㅉ’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ㅌㅌ, ㄸㅌ, ㅊㅌ, ㅉㅌ’를 만드는 소리.

52. 밑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국어의 구개음화는 어떤 음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가?
- ②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가?
- ④ ‘ㅈ, ㅊ’의 구개음화와 ‘ㄷ, ㅌ’의 구개음화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 ⑤ 현재 ‘ㄷ, 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디, 티’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5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 ㉡에는 모두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인해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었다.
- ③ ㉠과 ㉡은 모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뀌었다.
- ④ ㉠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⑤ ㉠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고, ㉡은 일부 음운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난 사례이다.

54.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며(저) 네 아드론 어뉘어늘(어질거늘) 내 아드리 비록 ㅁ디라도(만이라도) …… 王이 네 아드를 내ㅌ쇼셔(내치소서) - 『월인석보』 중에서 -
- ㉡ 그디 살고 니가 죽으면 저 조식을 킨을 거슬 니가 살고 그디 죽어 저(저) 자식 엇지(어찌) 키잔 말고 인고 인고 모진 목숨 …… 어린 자식 엇지홀ㄷ(어찌할까) - 『심청전』 중에서 -

※ () 안에는 해당 단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 현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준 것임.

평가원, 교육청 기출문제 총집합

- ① ㉠의 ‘더’와 ㉡의 ‘저’가 같은 단어이지만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이 ㉡보다 앞선 시대의 자료임을 알 수 있어.
- ② ㉠의 ‘더’, ‘덜’, ‘디’, ‘티’에서 ‘ㄷ’과 ‘ㅌ’이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것으로 보아, 이 음절의 초성 ‘ㄷ’과 ‘ㅌ’이 당시에는 구개음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의 ‘저’, ‘지’, ‘진’에서 ‘ㅣ’나 반모음 ‘ㅣ’ 앞에 ‘ㄷ’이 나타나지 않고 ‘ㅈ’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는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된 후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어.
- ④ ㉡의 ‘저’와 ‘저’는 같은 단어인데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ㅈ’을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구분되지 않고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어.
- ⑤ ㉠의 ‘어덜어늘’과 ㉡의 ‘모진’이 현재 ‘어질다’, ‘모질다’라는 기본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군.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7-39번

[55~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낯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 ‘밑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 ‘어둑새벽’, 그리고 ㉥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하였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숫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숫>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숫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55. 위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56.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15세기]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 24)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 ① ‘귀엣말’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 ④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귀엣말’이 15세기에도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57.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바꿀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샤프펜슬	○ 가락 ○ 뻘뻘하다 ○ 연필	㉠	가락연필	…… ①
		㉡	뻘뻘한연필	…… ②
스캔하다	○ 읽다 ○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 ③
스파게티	○ 부드럽다 ○ 새콤달콤하다 ○ 국수	㉣	부드럽국수	…… ④
		㉤	새콤달콤국수	…… ⑤

〈지문형 문법 문제〉 정답 및 선택지별 정답률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1번	②	8%	59%	15%	11%	7%
2번	①	39%	12%	27%	12%	10%
3번	②	21%	47%	10%	14%	8%
4번	②	7%	58%	8%	24%	3%
5번	③	16%	12%	64%	5%	3%
6번	④	5%	4%	9%	72%	10%
7번	④	28%	3%	13%	44%	12%
8번	①	75%	5%	14%	2%	4%
9번	⑤	5%	6%	15%	12%	62%
10번	④	7%	9%	9%	58%	17%
11번	③	5%	4%	88%	2%	1%
12번	③	5%	3%	84%	2%	6%
13번	③	4%	4%	74%	9%	9%
14번	⑤	11%	3%	12%	12%	62%
15번	④	5%	2%	6%	81%	6%
16번	④	3%	3%	6%	80%	8%
17번	①	77%	9%	7%	3%	4%
18번	⑤	6%	4%	20%	5%	65%
19번	⑤	9%	28%	5%	6%	52%
20번	③	5%	3%	86%	3%	3%
21번	①	56%	8%	9%	23%	4%
22번	②	4%	85%	4%	5%	2%
23번	②	4%	89%	3%	2%	2%
24번	④	5%	3%	3%	84%	5%
25번	②	7%	33%	22%	6%	32%
26번	⑤	4%	8%	2%	2%	81%
27번	⑤	2%	4%	1%	2%	91%
28번	②	2%	87%	2%	7%	2%
29번	④	2%	4%	4%	85%	5%

문항 번호	정답	①	②	③	④	⑤
30번	④	4%	3%	6%	67%	20%
31번	②	6%	56%	31%	4%	3%
32번	③	7%	3%	85%	3%	2%
33번	②	20%	68%	5%	4%	3%
34번	①	77%	4%	7%	3%	9%
35번	⑤	4%	4%	4%	14%	74%
36번	①	30%	9%	10%	32%	19%
37번	②	3%	88%	2%	5%	2%
38번	③	9%	3%	71%	7%	10%
39번	③	3%	3%	87%	3%	4%
40번	④	4%	3%	4%	81%	8%
41번	①	73%	5%	12%	4%	6%
42번	③	3%	3%	71%	9%	14%
43번	①	62%	5%	6%	5%	22%
44번	④	6%	2%	2%	88%	2%
45번	⑤	2%	3%	3%	3%	89%
46번	⑤	4%	4%	7%	5%	80%
47번	②	5%	67%	8%	18%	2%
48번	⑤	5%	8%	11%	16%	61%
49번	⑤	5%	7%	21%	38%	29%
50번	④	29%	4%	5%	54%	8%
51번	②	6%	69%	11%	7%	7%
52번	②	3%	43%	24%	8%	22%
53번	③	10%	10%	49%	16%	15%
54번	②	10%	45%	16%	13%	16%
55번	⑤	3%	2%	9%	7%	79%
56번	④	7%	6%	41%	23%	23%
57번	③	3%	17%	28%	24%	28%